https://doi.org/10.5392/JKCA.2019.19.04.111

대학생의 부전공, 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inor and Double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정현일*, 류영진**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Hyeon-Il Jeong(hijeong@pusan.ac.kr)*, Young-Jin Ryu(y_ryu@kitakyu-u.ac.jp)**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전공, 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조교들과 F.G.I를 수행하여 설문지를 제작했다. 설문조사는 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총 23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사용했으며 요인분석, 신뢰도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전공, 복수전공 관련 설문문항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성취, 수업차별, 수강신청차별이라는 3가지 주요 요인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주요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는 다중회귀분석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요인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영향의 정도는 필요성취, 수업차별, 수강신청차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부전공, 복수전공의 긍정적 기능과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부전공 | 복수전공 | 필요성취 | 수업차별 | 수강신청차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minor and double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is, F.G.I. was performed with the university teaching assistants to create a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performed to the subject of 239 university students completing minor and double major. A statistical program (SPSS)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irst, it drew three principal factors including need-achievement, class discrimination, and course registration discrimination by conducting factor analysis regarding survey questions on minor and double major. Nex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ying the effects of the three principal factors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ree principal factors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egree of influence over satisfaction marked the highest in the order of need-achievement, class discrimination, and course registration discrimination. In the conclusion, the positive function and possibilities of minor and double major are proposed.

■ keyword : | Minor | Double Major | Need-achievement | Class Discrimination | Course Registration Discrimination |

접수일자 : 2019년 01월 10일
수정일자 : 2019년 02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12일
교신저자 : 류영진, e-mail : y_ryu@kitakyu-u.ac.jp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소위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대학의 전공도 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학의 전공이 향후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체에서도 구직자의 인적자본을 중요하게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단일 전공을 이수하기보다 자기계발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전공, 복수전공(이하 부/복수전공)을 이수하기도 한다. 대학 내에서 부/복수전공 이수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부/복수전공을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대학 내에서 복수전공의 허용 비율을 대폭 늘리거나 복수전공의 심화형태인 자율전공을 추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1][2]. 둘째는 대학 간 복수학위제를 도입하여 입학한 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위를 받게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경인지역의 14개 대학이 복수학위제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국립대들도 복수학위제를 추진한바 있다[3][4]. 이 제도가 단순히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늘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구조조정, 대학통폐합과 관련되어 해석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4].

부/복수전공의 양적, 질적 확장이 실제 학생과 대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예단하기 힘든데, 이는 부/복수전공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현행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파악한다면 부/복수전공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강점과 한계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특정 요인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때 해당 요인을 제어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적 요인을 최소화하지 않고 제도의 확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와 같은 부/복수전공 연구는 기존의 수업만족도, 학업생활만족도 연구로 환원할 수 없다.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자기가 원래 소속전공, 학과, 단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주변적 구성원, 즉 '타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주변적 위치에서 수업을 듣는 이들의 특수성은 부/복수전공에 타당한 연구를 요청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 요인들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요인 간 우선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 4년제 대학생의 부/복수전공 이수 관련된 설문문항을 제작하고 부/복수전공 만족도를 묻는다.
2) 부/복수전공 이수와 관련 설문문항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여 측정도구를 검증한다.
3) 추출한 주요 요인들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는 다중회귀모형을 도출하여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을 확인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통해 도출된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부/복수전공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최근까지 대학생의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선행연구도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이유를 단순히 조사하거나, 부/복수전

공 이수가 취업에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먼저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복수전공의 전국적 현황에 대해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선택한 이유에서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로 46.8%로 나타났으며, '하고 싶거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가 25.0%로 나타났다[5]. 2012년 K대학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취업도움'이 59.3%, '학문적 관심'이 28.6%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부/복수전공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학생이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6]. 다른 한편 2014년 상명대학교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폭넓고 다양한 공부를 위해'가 33.3%,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6.6%, '학과에 만족하지만 마음에 드는 또 다른 학과가 있어서가 23.7%로 나타났다[7].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소속 학과가 학생의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복수전공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15.9%로 재수 12.4%, 전과 10.6%, 편입 10.6%, 해외유학 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이 부/복수전공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단순히 취업만이 아닌, 학문적 관심이나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부/복수전공은 소속전공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관심을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부/복수전공 이수가 취업에 주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복수전공은 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고 취업가능성을 높이거나 소득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8-10]. 대학생들은 주요한 취업전략 중 하나로 부/복수전공을 선택하는데 이는 학교만이 아니라 학과라는 '스펙'이 학생들의 취업기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11]. 다른 한편 부/복수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복수전공이 4년제 여대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사실상 복수전공의 효과가 크지 않다거나, 복수전공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경상계열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12][13]. 또한 복수전공 이수가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 취업여부, 월평균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14][15]. 이처럼 부/복수전공이 실제 학생들의 취업에 '객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단순한 기술통계에 그치거나, 졸업 이후 취업과의 연관 속에서 분석되었으며, 부/복수전공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객관적'으로 합의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부/복수전공의 어떤 점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이 부/복수전공에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떤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을 주는지에 관한 통계적 연구도 부재하다.

그럼에도 부/복수전공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취업만이 아니라 학문적 관심, 자기계발 등 소속전공이 충족시켜주지 못한 관심을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복수전공을 단순히 취업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족도라는 개념은 부/복수전공 이수에 따른 취업 관심만이 아니라 학문적 관심, 자기계발과 같은 다양한 관심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학생들의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복수전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영향을 확인해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수모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전공들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 4년제 대학의 부/복수전공 이수자의 만족도 결정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복수전공을 이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는 다중회귀모형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일반 4년제 대학 P대학에 재학하는 부/복수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3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특히 연구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인문사회계열, 상경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등 다양한 계열에 소속과 다양한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표 1. 부/복수전공 응답 학생 현황

구분	성별		학년		
	남	여	2학년	3학년	4학년
부전공	80 (46.0)	94 (54.0)	22 (12.6)	79 (45.4)	73 (42.0)
복수 전공	20 (30.8)	45 (69.2)	18 (27.7)	25 (38.5)	22 (33.8)

또한 연구대상이 '부/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의 빈도값 '부/복수전공 만족도' 평균값(10점 만점)의 현황은 구했다. 특히 부/복수전공 이수 이유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확인했듯이 '취업'과 함께 '개인적 관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부/복수전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표 2. 부/복수전공 이수 이유, 만족도 평균 현황

구분	부/복수전공 이수 이유				부/복수 전공 만족도
	취업	개인적 관심	심화 전공 부담	기타	
부전공	29 (16.8)	104 (60.1)	34 (19.7)	6 (3.4)	6.92
복수 전공	12 (18.5)	51 (78.5)	1 (1.5)	1 (1.5)	7.26

2. 연구설계 및 분석도구

이 연구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은 설문지 작성, 설문조사, 통계분석, 결과해석으로 진행했다. 연구방법으로는 F.G.I를 통한 설문지 제작과 함께 설문조사,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활용했다.

먼저 조사도구인 부/복수전공 관련 설문지 작성을 위해 2017년 11월 3일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6개 학과의 조교 6명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했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부/복수전공 운영의 내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복수전공 설문문항을 작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설문문항은 응답하기 용이한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이때 Q1~Q11을 부/복수전공에 대한 주요 요인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12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했다.

표 3. 부/복수전공 관련 문항

문항	척도(범주)
Q1. 필요한 부/복수전공으로 이수 여부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Q2. 강의 공지, 일정 통보 여부	
Q3. 기출문제/족보, 수업자료 인지 및 획득 여부	
Q4. 부/복수전공 이수모형 인지	
Q5. 수강신청 시 주전공학생 전용 분반에 따른 수업 권리를 침해 인지	
Q6. 수강신청 시 부/복수전공 배정인원에 따른 적어 수업 권리 침해 인지	
Q7. 팀 프로젝트 수행, 조 편성, 과제수행 시 주전공생 대비 불이익 인지	
Q8. 팀 프로젝트 조원 평가 시, 불이익 인지	
Q9. 부/복수전공 이수에 따른 학문적 성과 달성	
Q10. 부/복수전공 필수(기초)교과목의 학문이해 도움 여부	
Q11. 부/복수전공과 자기 목표(자기 계발) 도움 여부	
Q12. 부/복수전공 만족도	10점 척도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한다)

다음으로 2017년 11월 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반 4년제 P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부/복수전공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학기 초가 아닌 학기 말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부/복수전공을 신청한 직후 시점보다, 수강신청, 수업, 시험과 같은 내용을 경험한 학기말이 되어야 학생들의 부/복수전공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분석 도구로 통계프로그램인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했다. 통계분석 중 요인분석, 신뢰도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부/

복수전공 이수와 관련된 11개의 설문지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추출된 요인들의 의미를 해석한 후, 의미 있는 척도를 구성했다. 이와 같은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타당도를 높였다. 구성 요인 추출을 위해 모든 측정변수에 대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시행하고, 요인 적재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인 배리맥스(varimax)를 채택했다. 요인적재치는 각각의 변수와 요인 간 상관관계의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변수의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일 경우 유의한 변수로 보며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다음으로 주요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검정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 요인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 분석기법을 실시하고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주요 요인들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실제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중회귀모형을 도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도출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IV. 연구결과

1. 요인분석 및 신뢰도검정

Q1~Q11번 문항에 대한 1차 요인분석 결과 Q2, Q4의 추출된 공통성이 각각 0.320, 0.278로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수는 개별 강의에서 이뤄지는 공지내용, 교육과정 인식에 관한 질문으로 다른 요인들과 접점을 찾기 힘들며 명료히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모델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Q2, Q4을 제거한 후 2차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 4. 부/복수전공 요인분석 적합성 검정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740
근사 카이제곱	660.583
자유도	36
유의확률	.000

분석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가 0.740로 높은 값을 보여주며, 유의확률도 0.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문항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문항별 공동값과 신뢰도 값인 Cronbach's alpha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 부/복수전공 요인분석 결과표

회전된 성분행렬				
구분		성분		
		1	2	3
요인 1 (필요성취)	Q1	.738	−.137	.128
	Q9	.765	−.193	−.060
	Q10	.733	.101	.199
	Q11	.858	−.132	.024
요인 2 (수업차별)	Q3	.070	.684	.200
	Q7	−.230	.855	.135
	Q8	−.188	.833	.100
요인 3 (수강신청차별)	Q5	−.027	.170	.861
	Q6	−.031	.198	.847
고유치		3.088	1.928	1.113
총분산에 대한 설명량(%)		27.765	22.709	17.638
누적 설명량(%)		27.765	50.474	68.112
Cronbach's alpha		.788	.743	.720

설명된 총 분산은 68.112%로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에서 공통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타당성을 나타냈다.

요인 1은 Q1, Q9, Q10, Q12로 구성되며, 부/복수전공에 대한 '필요성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필요성취'는 부/복수전공에 대한 학생의 필요성, 학문적인 성과, 이해도 성취, 학생의 목표와 자기계발 관련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학생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를 반영하며,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요인 2는 Q3, Q7, Q8로 구성되며 '수업차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업차별'은 부/복수전공 강의, 시험, 팀 프로젝트 발표 시 타과생의 입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외감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은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업차별'은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요인 3은 Q5, Q6로 구성되며, '수강신청차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강신청차별'은 부/복수전공 수강신청 시 발생하는 차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신청차별' 역시 '수업차별'과 마찬가지로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검정을 수행한다. 신뢰도검정은 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측정 결과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신뢰도검정 결과, '필요성취' 요인의 Cronbach alpha값은 0.788, '수업차별' 요인은 0.743, '수강신청차별' 요인은 0.720으로 나타나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우린 요인분석, 신뢰도검정을 수행하여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주요 요인들은 부/복수전공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의 부/복수전공에 관한 통계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대한 주요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다음으로 주요 요인들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여 부/복수전공 결정요인을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 주요 요인들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면 '필요성취', '수업차별', '수강신청차별' 요인을 타당성 있는, 향후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결정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요 요인들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유의미성을 확인한다. 이때 '필요성취'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업차별', '수강신청차별'은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필요성취, 수업차별, 수강신청차별은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2: 필요성취는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3: 수업차별은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4: 수강신청차별은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주요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를 모두 더한 후 5점 척도로 변환하는 리코딩작업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 '필요성취', '수업차별', '수강신청차별'을 놓고, 종속변수에 '부/복수전공 만족도'를 놓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통계적 엄밀성을 위해 수정된 R^2와 공차한계, Durbin-Watson 값을 함께 확인한다.

표 6. 부/복수전공 만족도 요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차 한계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747	.555		3.145	.002	
필요 성취	1.679	.112	.682	14.969	.000	.938
수업 차별	−.198	.090	.106	−2.186	.030	.820
수강신청 차별	−.166	.069	−.114	−2.409	.017	.868
R=.740, R^2=.547, Adjusted R^2=.541 F=93.765, p≦.000, Durbin−Watson=2.057						

분석 결과, 다중회귀모형의 F값은 93.765,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R^2는 0.547, 수정된 R^2값은 0.541로 약 54.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2.05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복수전공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이 유의하기 때문에 연구가설 1을 채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필요성취(t=14.969, p=0.000), 수업차별(t= - 2.186, p=0.30),

수강신청차별(t= - 2.409, p=0.1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의 경우 필요성취가 0.938, 수업차별이 0.820, 수강신청이 0.868로 모두 0.1보다 높은 값을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준화 계수 베타(B)의 경우 필요성취가 14.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강신청차별이 - 2.409, 수업차별이 - 2.1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필요성취, 수강신청차별, 수업차별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비표준화 계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부/복수전공 만족도 = 1.747 + 1.679×필요성취 +
-0.198×수업차별 + -0.166×수강신청차별

위 모형으로부터 각 요인이 부/복수전공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복수전공에 대해 필요성취는 양(+)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수업차별과 수강신청차별은 음(-)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 연구가설 3을 채택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부/복수전공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다중회귀모형을 도출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부/복수전공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학문적 관심, 자기계발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와 연관하여 실제로 자기주도적 학습, 자발적 수업활동은 학생들의 학습성취도, 성적 등을 높이며, 그 효과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16-18].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부/복수전공을 이수하게 하고(Q1), 학생 스스로가 학문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Q9), 부/복수전공 필수교과목을 적절히 설정하여 부/복수전공 이해도를 높이고(Q10), 부/복수전공 이수가 학생들의 목표(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Q11). 이와 같은 필요성취의 고양을 통해 부/복수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수업차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요인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와 같은 수업차별을 겪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출문제/족보, 학과 내부의 수업자료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고(Q3), 팀 프로젝트에서 타과 학생을 배려하고(Q7), 팀 프로젝트와 과제수행 평가에서 해당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Q8). 즉 부/복수전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의 소통이 잘 이뤄지게 하고, 학생에게 평가 과정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은 부/복수전공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에서 차별받는 것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신청차별은 수업차별보다 만족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분반을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Q5), 부/복수전공 학생을 위해 배정인원을 적절히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Q6). 이는 강의 분반 수, 수강인원 배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모형에서 나타났듯이 부정적인 요인인 수업차별, 수강신청차별을 통제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요인인 필요성취가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부정적인 요인들이 각각 3배씩 증가해도, 긍정적 요인인 필요성취가 1 증가하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복수전공의 제도 개선에서 부정적 요인을 통제하기보다 긍정적 요인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이유와 필요성취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복수전공이 학생과 소속전공에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연구대상의 '부/복수전공 이수 이유'에서 확인했듯이 부/복수전공은 소속전공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취업, 학문적 관심, 자기계발과 같은 각종 관심을 해결해주는 현실적 대안이었다. 또한 다중회귀모형에서 필요성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를 성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복수전공은 학생들의 각종 관심과 필요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긍정적 기능을 지닌다. 만약 부/복수전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각종 관심에 대한 필요를 성취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에 소속전공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이탈(전과, 편입, 해외유학)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정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부/복수전공 학생에 대한 각종 암묵적 차별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다. 비록 부/복수전공 만족도에서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긍정적 요인보다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수업권 차별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복수전공이 단순히 취업이 잘되는 전공만이 아니라, 취업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전공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확인했듯이 학생들이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이유에는 취업만이 아니라 학문적 관심이나 자기계발과 같은 개인적 관심이 상당했다. 따라서 소위 취업과 무관한 전공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 자기계발과 같은 개인적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부/복수전공 확대는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의 필요성취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부/복수전공 제도는 전공수강생의 수를 늘리고 교육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등 전공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은, 학생들의 개인적 관심, 필요성취가 각 전공의 고유한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복수전공 제도 확대를 이유로 개별 전공의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형해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부/복수전공 확대는 각 전공의 교육과정 내실화, 충실화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다. 특히 설문지의 내용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패널과 같은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한계는 결정요인들이 일반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차후 연구에서 설문지 타당도 검증과 함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조사도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239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각 계열별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해 계열별 특성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계열별로 교육과정이 상이하고, 부/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목적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계열별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 전국의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일반성을 높이고, 나아가 각 계열 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을 발견했지만, 부/복수전공에 대한 교육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복수전공 제도의 어떤 점이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지 못했다. 이는 부/복수전공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을 요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해당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부/복수전공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부/복수전공 만족도 결정요인은 대학과 관련 교육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위 취업과 무관한 전공에게도 부/복수전공의 긍정적 기능과 가능성을 환기시키고, 최근 대학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학 간 복수학위제, 복수전공 확대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부산대학교 교무과,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산대학교, 2018.
[2] http://www.kookje.co.kr/
[3] http://news.hankyung.com/
[4] http://news.mt.co.kr/
[5] 유한구, 민숙원, 류지영, 신동준, 이은혜, *한국교육*

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16) : 제12차(2015)년도 자료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6] 심광호, *대학생의 교육만족도 및 취업준비에 관한 실태 조사: K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 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4학년도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제28권, pp.1-133, 2015.
[8] 권순일, *복수전공 이수 여부 결정요인 및 복수전공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서울 소재 S 대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9] 김훈호, 우한솔, 김한길, 김별희, "복수전공 이수가 첫 직장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8권, 제11호, pp.37-70, 2015.
[10] 남기곤, 윤진호, 이시균,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발전학회, 제16권, 제1호, pp.143-172, 2010.
[11] 최봉재, *한국 대학생의 취업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채창균, 김태기,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pp.89-107, 2009.
[13] 염동기, 문상규, 박성수,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취업진로연구, 제7권, 제4호, pp.45-68, 2017.
[14] 김민석, 안은비, 유경숙, 정효숙, "대학생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27-35, 2018.
[15] 김미성,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 조은순, 남상조, "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의 자발성과 수업기능 활용, 학습 성공에 대한 이해도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969-975, 2011.
[17] 박진아, 홍지연,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342-351, 2016.
[18] 장우심,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대한 팀 기반 학습 적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655-666, 2016.

저 자 소 개

정 현 일(Hyeon-Il Jeong) 정회원

- 2012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16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2019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박사수료)
- 현재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조교

<관심분야> : 문화사회학, 공간사회학, 지역사회학, 사회조사

류 영 진(Young-Jin Ryu) 정회원

- 2008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11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2015년 3월 : 일본 후쿠오카대학 경제학연구과(경제학박사)
- 현재 : 일본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 특임교수

<관심분야> : 문화경제학, 경제정책, 문화사회학